

정경심 오늘 오전 영장심사...수사 57일만에 첫 포토라인

10시30분부터 심문...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사모펀드·입시부정·증거인멸 의혹...11개 혐의 적용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청구 혐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	▶ 사문서 위조
	▶ 업무방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 위조 사문서 행사
자택·동양대 PC 하드 교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증거위조 교사
사모펀드 투자 관련	▶ 증거인멸 교사
	▶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위반
	▶ 업무상 횡령



업무상횡령, 증거위조교사,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하루 앞두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중에 결정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뒤 57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희관)는 전날(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모두 11개에 이른다.

먼저 자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데 대해서

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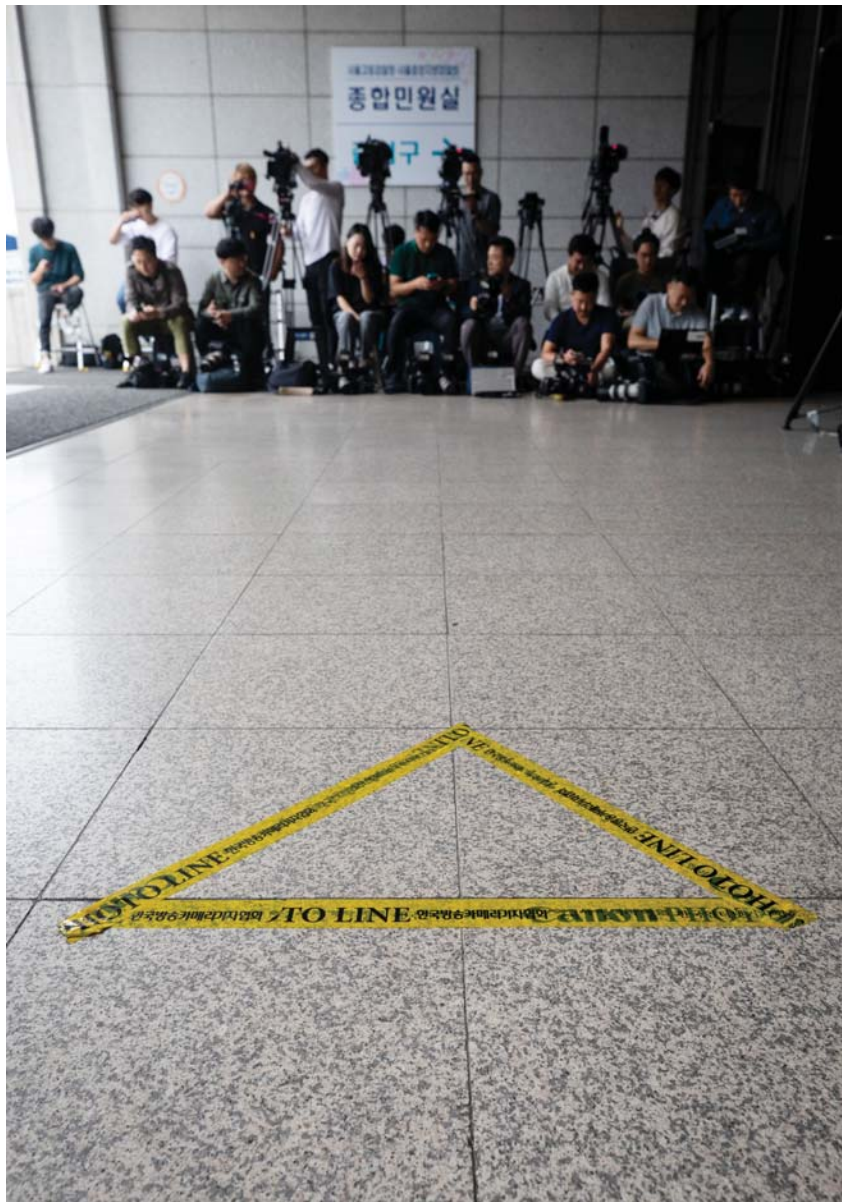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먼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자금역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는 의혹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의혹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크(PB) 김경복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코팅PC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인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라는 취지는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경심 영장판사 이력보니... '윤석열 협박' 보수유튜버 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에 의해 결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송 부장판

판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송 부장판사를 비롯해 명재권·신종열·임민성 부장판사 등 4명이다. 법원은 1주 단위로 2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구속

영장을 각각 반씩 담당한다.

학교법인 운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명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을 가

능성도 있었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송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다.

제주 출신의 송 부장판사는 제주대부설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다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최근 송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중훈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했다.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송 부장판사가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21일)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전연) 소속 회원 7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희관)는 전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1개에 이른다.

'조국 의혹' 수사지휘 송경호 차장과 동명이인 '버닝썬' 윤충경 구속... 삼바 대표 영장은 기각

사는 다음날(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